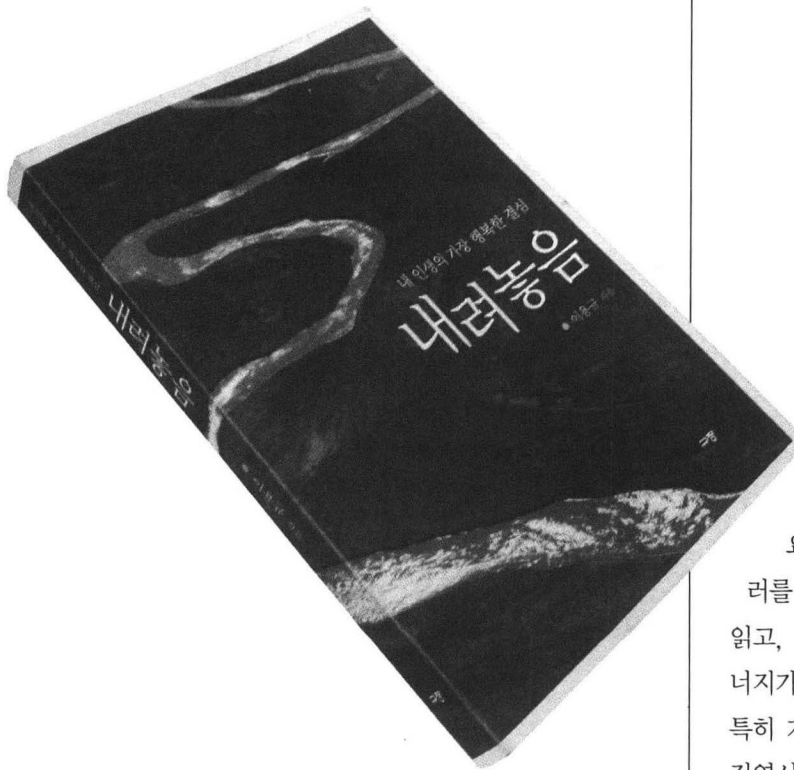


《내려놓음》 ‘신적 채워짐’을 희망하며

글_신상목(월간 《빛과소금》 기자)



《내려놓음》 이용규 지음 | 규장 | 247쪽 | 값 9,800원

어느덧 기독교, 특히 개신교계가 만들어낸 책들이 일반 시장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되는 시대가 되었다. 그동안 불교 관련 서적이 일반 시장에서 환영받던 것을 지켜만 보던 기독교계에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이젠 개신교계 출판 관계자들 사이에서 “20~30만 부는 기본”이라는 말이 나오는 걸 보면 그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다. 일단 베스트의 ‘반열’에 올라 힘만 받으면 100만 부까지 바라보는 상황이 되고 있다. 그만큼 일반인에게도 어필하는 내용인데다 당대의 상황과 맞물리면서 갈급한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때문이기도 하다. 물론 개신교계 출판사들의 치밀한 기획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말이다.

지난해까지 개신교계 베스트셀러였던 《긍정의 힘》은 개신교계 출판이 일반

시장 독자들에게도 충분히 어필했던 대표적 책이었다. 개신교계 출판의 블루오션 시대가 열린 셈이다. 불확실한 시대, 부정의 시대에 ‘긍정’의 힘이 필요했던 사람들은 미국에서도 베스트셀러를 누렸던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의 책을 읽고, ‘베스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긍정의 에너지가 절실함을 깨달았다. 이 책은 일반인, 특히 기업인들에게 관심을 끌며 긍정 파워를 전염시키기 위한 필독서로 지정할 만큼 인기를 끌었다.

이미 개신교계 베스트셀러로는 《긍정의 힘》 이전에도 《목적이 이끄는 삶》이 있었고, 그 이전엔 《야베스의 기도》가 있었다. 저마다 당대의 베스트셀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했던 도서들이다. 이 책들은 지금까지 스테디셀러이기도 하다.

내려놓음은 채워지기 위한 것

요즘 개신교계 베스트셀러의 중심엔 《내려놓음》이 있다. 출판계의 불황 속에서도 몽골 선교사의 스토리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

이다. 저자 이용규 선교사는 서울대 동양사학과와 동대학원을 나와 미국 하버드대에서 '중동 지역학 및 역사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국내외에서 안정적인 기회를 얻을 수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원래 자신이 받았던 소명이 이끄는 곳으로 걸어가는 이야기이다. 책에서 그는 자신이 어떻게 소명을 받게 되었고, 그 소명을 수행하기까지 어떻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는지를 소상히 소개하고 있다.

독자들은 이 선교사의 그런 과정을 통해 자신이 오늘 내려놓아야 하는 것을 함께 고민하게 되고 기독교인이라면 자신도 그렇게 살기 위해 기도하며 이 책을 읽게 된다. 특히 이 선교사는 자기를 내려놓는 과정의 친절한 소개를 통해 자신이 신앙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란 무엇인가를 각 장마다 강조하고, 독자들로 하여금 그 길을 가도록 가이드해주고 있다.

그래서 참된 내려놓음이란 단순히 자기를 비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채우는 과정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흔히 불교에서 강조하는 '자기 비움' 또는 '자기 버림'에서 한 차원 뛰어넘는 차별을 시도한다. 즉 자기를 비우는 것은 '채워짐'을 위함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채워짐이란 흔히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과 명예, 부로부터의 행복이 아니라 '신적 채워짐'을 통한 초월적 행복,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부분이야말로 종교 베스트셀러로서 돋보이는 부분이다.

이렇게 자기 것을 내려놓는 행위, 자기 것을 비우고 신에게 맡기는 것을 통해 신적 인도함을 받는 길은 전혀 새로운 길이다. 적어도 이 선교사의 배경을 아는 사람들에게겐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삶일지는 몰라도, 몽골에서의 그의 삶은 마치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처럼 예비되었던 길이었다. 독자들은 그렇게 저자를 통해 '신적 채워짐'을 목도하게 되면서 신기하게 기도 하고, 자신들도 용기를 얻는 것이다.

이 선교사의 '내려놓음'이 일반인들에게 어필하는 이유는 뭘까. 이 주제가 '자기 비움'과 '신적 채워짐'이라는 종교성을 갖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물질문명 속에서 자신의 이익과 행복만 추구하려는 경향에 익숙해 있던 사람들에게 '깡야' 같은 삶이 주는 드라마틱한 '인도하심'에 대한 놀라움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자신은 그럴 수 없지만 선교사의 생생한 체험을 통해 희열을 경험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블루오션에서 진짜 베스트를 낚아보자

이렇게 개신교계의 책들이 일반 시장에서 '블루오션'을 만든 것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블루오션에의 항해는 《야베스의

기도》를 시작으로 불붙은 개신교계 베스트의 위력 때문이다. 《야베스의 기도》의 뒤를 이어 《목적이 이끄는 삶》이 나왔고, 최근에는 《긍정의 힘》이 돋보였다. 《야베스의 기도》는 출간 7개월 만에 미국에서 100만 부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고 《목적이 이끄는 삶》도 2003년에 번역되어, 2004년까지 91쇄를 넘겼다고 한다. 게다가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에서 애실리스미스라는 여성이 법원에서 판사에게 충격을 가하고 도망하던 범인을 설득하고 감화시키는 드라마틱한 과정이 바로 이 책 때문이라는 것이 소개되면서 더욱 폭발적인 힘을 발휘한다.

개신교계 출판물의 성공은 역으로 일반 출판계에서도 눈독을 들이는 영역이기도 하다. 기독교 관련 책들의 '성공' 탓이다. 실제로 경영서와 자기계발서를 주로 내는 청림출판의 경우, 이미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인생》을 비롯, 개신교계의 베스트 작가인 필립 안시의 《기도》(근간)까지 준비하고 있어, 기독교 출판 시장의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일반 대형출판사의 가세로 해외 번역서인 경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반 출판사들의 기독교 진출로 인해 더욱 다양한 내용의 기독교 출판물에 대한 기대도 나오고 있다.

어쨌든 기독교, 특히 개신교계의 '약진'은 종교적 내용을 넘어 참된 가치와 행복을 일반인에게도 심어주고 있고, '전도' 또는 '포교'의 기능까지 감당하고 있어 개신교계로서는 기뻐할 일이다.

한편, 이같은 베스트셀러들은 성공을 발판으로 속편도 부지런히 출판하고 있다. 《야베스의 기도》는 여성, 청소년, 어린이를 위한 야베스의 기도, 목상을 위한 야베스의 기도 등 시리즈물을 출간했다. 《목적이 이끄는 삶》도 여성을 위한 목적이 이끄는 삶, 영유아를 위한 목적이 이끄는 삶, 소그룹 시리즈 등이 속속 출간되었다. 《긍정의 힘》역시, 긍정의 힘 실천편, 새벽 40일, 어린이를 위한 긍정의 힘 등의 유사 후속작이 출간되면서 베스트의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후속편들이 자칫 원작이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도 하게 된다. 마치 '내려놓음' 자체가 목적이 아닌, 내려놓음 이후 보장되는 '채워짐'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어쨌든 《내려놓음》이 일반 시장에서도 약진하는 것은 이제 종교서들이 일반인에게도 어필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내려놓음》을 통해 올 한 해도 '신적 채워짐'으로 행복해지는 독자들이 많아지길 소망한다. **★**